완도 군외중학교, 강진푸소로 쉼과 성장을 함께

처음 방문한 강진에서 1박 2일 따뜻한 감성 충전 완료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완도 군외중학교 전교생 17명과 교사 8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인 푸소(FU-SO) 체험이 진행됐다.

올해 처음 푸소체험에 참여한 완도 군외중학교는 전 학년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어촌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인성과 감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학생 푸소(FU-SO) 체험은 강진군의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문학 체험을 통해 역사와 소양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강진다원과 백운동원림, 강진만 생태공원 트레킹, 청자박물관 및 디지털청자박물관 견학, 청자 머그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강진의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했다.

한 학생은 "처음에는 낯선 곳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올해 처음 푸소체험에 참여하는 학교는 하반기 예약 학교까지 포함해 총 11개 학교에 달한다. 완도 군외중학교처럼 신규 참여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푸소 체험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강진의 농어촌 민박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전국적인 현장교육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푸소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이 사회적 감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완도군외중학교처럼 처음 방문한 학교의 참여가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기관과 연계해 강진을 살아 있는 교육현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양경자청, 농번기 맞아 매실농가 일손돕기 나서

일손 부족한 농가 찾아 매실 수확 지원… 지역사회 상생 실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에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 돕기 현장에는 행정개발본부장을 포함한 광양경자청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광양시 옥곡면·다압면, 하동군 악양면 등 3개 지역 농가를 방문해 매실수확과 선별작업을 도왔다. 특히 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민과의 소통 및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양경제청 직원들과 일손 돕기 현장을 함께한 직금마을 고영환 씨는 "매실수확 작업을 앞두고 인력난으로 걱정이 앞섰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어 작업량이 많이 줄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선양규 행정개발본부장은 "직원들과 함께 농촌 현장에서 직접 수확을 도우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광양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경자청은 매년 관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시 자원봉사단체, 세계환경의 날 맞아 해양정화활동

순천만습지 일대, 30여개 자원봉사 단체와 유관기관소속 참여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신숙)는 지난 4일 세계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순천만습지 일대에서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인 '그린(Green) 발자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히는 순천만습지를 보호하고, 해양안전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30여 개 자원봉사 단체와 유관기관 소속 자원봉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했다.

'그린(Green) 발자국' 프로젝트는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순천만습지 일대의 해양안전과 순천의 아름다운 생태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신숙 센터장은 "그린 발자국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정화활동을 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습지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ESG 실천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위해 헌신해주신 시민 여러분이 진정한 '일류 시민'의 표본"이라며 "앞으로도 순천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는 환경정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계층의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단체 간 협업을 강화해 지역 주민 중심의 자원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이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 텀블러·장바구니 사용 등 일상 속 친환경 실천 캠페인도 병행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 나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 배움엔 때가 없다"

전남교육청,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5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평생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합격의 결실을 이룬 합격생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만학도 및 이주 배경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검정고시 합격자와 가족, 지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기쁨을 누렸다.

올해 73세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나OO 씨는 "오늘의 나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이다. 어린 시절 꿈이었던 법대 입학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중국에서 귀화한 이OO 씨는 2024년 초졸, 중졸에 이어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 연속 합격했다. 그는 "전라남도의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교육기회에 감동했다. 앞으로 한국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한 삶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검정고시는 단순한 학력 취득을 넘어 자아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아름다운 여정"이라며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소외 없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담양군 봉산면, 화재 취약가구에 투척용 소화기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 활용해 92곳에 설치·안내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미심·진철)는 지난 2일, 화재에 취약한 고령 노인가구와 다자녀 가구, 경로당 등 총 92곳에 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쌍교숯불갈비(대표 김창회)에서 기탁한 후원금 1,000만 원 중 일부를 활용해 추진됐으며, 협의체 위원과 생활지원사들이 각 세대와 경로당을 방문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고령 1인 가구,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화재에 취약한 경로당 등으로 구성됐다.

설치된 투척용 소화기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초기 화재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한 주민은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때도 간단한 방법으로 화재에 대비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놓인다"라고 말했다.

진철 공동위원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옥 기자